

리눅스 운영체제 개발자인 리누스 토르발스가 2005년 리눅스의 소스코드를 잘 관리하기 위해 깃을 세상에 소개하였다. 오늘날엔 리눅스 뿐 만이 아닌 수많은 소스코드가 대표적인 버전관리 시스템인 깃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.

### 1. 깃을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 : 버전관리

깃에서는 새로운 파일 생성 또는 파일내용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그 변화를 보여준다. 버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각각의 버전 사이의 차이점을 손쉽게 볼 수 있다.

깃업데스크탑의 체인지파트는 각각의 버전의 변화된 점과 용량차이를 표시하고 있으며 히스토리 파트는 각각의 버전에대한 설명들이 있다. 두 개의 파일을 함께 변경할 시 히스토리에 그룹화되어 표시된다.

간편하게 클릭 한두번으로 프로젝트를 과거의 상태로 돌릴 수 있고 버전관리를 이용하면 보다 세련된 처리가 가능하다.

### 2. 깃을 사용하는 두 번째 목적 : 백업

컨텐츠를 다른 컴퓨터에 복제하는 백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툴이 github.com이다. 퍼블리시 레파지토리에 입력 시 내 저장소와 같은 것이 원격 저장소인 깃허브에 저장되게 된다.

푸쉬(push)를 클릭하면 원격저장소에 전송하여 저장시키고 원격저장소에 저장된 정보(소스코드와 버전)를 다른 컴퓨터로 풀(pull) 하여 가져올 수 있다.

### 3. 깃을 사용하는 세 번째 목적 : 협업

위와 같은 백업은 원격저장소를 매개로 협업이 될 수 있다. 협업자와 같은 파일을 수정할 시 자동으로 그 파일을 합쳐주고 같은 행을 수정했을 때는 나중 업로드 하는 사람에게 정리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 협업에서의 깃의 역할이다.

깃은 다루는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주 특징으로는 먼저 토토이즈깃은 윈도우 탐색기에 기생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. 깃업데스크탑의 특징은 기능이 심플하여 배우기는 간편하나 고급사용자가 되면 답답할 수 있고 소스트리는 배우기 복잡하지만 자유로운 툴이다.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깃 오리지널 프로그램은 명령어를 통해 대화하듯 깃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다.